

그리스도 —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리신 분

성경: 신 21:22-23, 뱀전 2:24, 갈 3:2, 5, 13-14

- I.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분으로서 나무에 달리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다. 여기서 우리는 나무에 달리신 분,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예표를 본다 — 뱀전 2:24.
- A. 어떤 범죄자는 나무에 달리는 방식으로 처형되기도 했다.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었다 — 신 21:22-23.
 - B.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 처형당하여 나무에 달렸을 경우, 그 시체는 밤새도록 나무에 남겨 두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날 장사되어야 했다.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— 신 21:23.
 - C.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, 즉 나무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죽으셨으며,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날 장사되셨다 — 행 5:30, 10:39, 13:29, 요 19:31.
- II. 저주의 원인은 사람의 죄이다 — 창 3:17하, 롬 5:12.
- A.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후에 “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”라고 말씀하시며 저주를 가져오셨다 — 창 3:17하.
 - 1. 아담의 후손인 모든 죄인들은 저주 아래 있다. 아담은 우리 모두를 저주 아래로 이끌었다 — 창 3:17하, 롬 5:12, 17-18.
 - 2. 궁극적으로 저주는 죽음이다. 다른 모든 고난들을 포함하는 죽음은 저주의 완결이다 — 롬 5:12, 17, 6:16, 21, 23.
 - B. 아담이 범죄한 후에 땅은 저주 때문에 가시나무를 냈다. 따라서 가시나무는 저주받은 것의 표시이다 — 창 3:18, 히 6:8.
- III. 저주는 율법을 통해 수행되는데, 그것은 율법이 저주를 집행하기 때문이다 — 갈 3:10.
- A. 율법이 주어질 때까지 저주가 완전히 공식적인 것은 아니었다. 그러나 이제 율법은 아담의 모든 후손이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선포한다 — 롬 5:13.
 - B. 그러므로 저주는 하나님의 율법과 관계있고, 죄인들에게 부과되는 하나님의 의의 요구이다 — 롬 3:19.
 - C.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쓴다면, 우리는 육체 안에 있을 것이고 자동적으로 저주 아래 있게 될 것이다. “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성경에 ‘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습니다.’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” — 갈 3:10.

신명기

메시지 8 (계속)

IV. “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,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습니다. 왜냐하면 성경에 ‘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받은 사람입니다.’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” — 갈 3:13.

A.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시고 저주를 없애는 일을 하심으로,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 내는 위대한 일을 성취하셨다 — 갈 3:13, 뱀전 2:24.

B. 그리스도 자신께서 ‘우리의 죄들을 직접 자기의 몸에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리셨다’ — 뱀전 2:24.

1.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‘나무’라는 단어는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, 곧 신명기 21장 23절에 예언되었듯이 범죄자를 사형시키는 데 사용된 로마의 사형 도구였다. 신약의 다른 곳에서도 십자가가 나무로 불린다 — 행 5:30, 10:39, 13:29.

2.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계셨을 때,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어린양 위에 두셨다 — 사 53:6, 요 1:29.

3.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죄들을 짊어지려고 한 번 죽으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심판을 받으셨다 — 히 9:28, 사 53:5, 11.

4.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는 죄들을 향하여 죽음으로써 의를 향하여 살게 되었다 — 롬 6:8, 10-11, 18, 뱀전 2:24.

C.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셨을 때, 우리의 저주 또한 가져가셨다 — 요 1:29, 갈 3:13.

1. 가시관이 나타내는 것은 다음과 같다. 가시나무가 저주의 표시이기 때문에, 그리스도께서 가시관을 쓰신 것은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떠맡으셨다는 것을 나타낸다 — 요 19:2, 5.

2.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고, 따라서 그분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었다 — 갈 3:10.

3. 율법은 우리를 유죄 판결하고 저주를 공식적인 것이 되게 하는 반면에,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— 갈 3:13.

4. 아담의 타락을 통해 들어온 저주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해 처리되었다 — 갈 3:13.

D. 그리스도는 우리를 저주에서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, 우리를 대신하여 심지어 저주가 되셨다.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으신 것을 가리킨다 — 갈 3:13, 막 15:33-34.

1. 주 예수님은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심판받으셨고, 하나님은 그분을 죄로 인해 고난받으시는 우리의 대속자로 간주하셨다 — 사 53:10상.

2. 우리의 죄와 죄들, 그리고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십자가에서 처리되었고,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노예-구주를 버리셨다 — 막 15:33-34.

결정 연구 개요

메시지 8 (계속)

- a.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버리셨는데,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심으로 죄인들을 대신하셨기 때문이다 — 벤전 3:18, 2:24, 사 53:6, 고후 5:21.
 - b.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스도는 큰 죄인이 되셨고, 하나님은 우리의 죄들 때문에 그분을 우리의 대속자로 심판하셨다 — 요 3:14, 롬 8:3.
 - c.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속자이셨고,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지어 죄이셨다.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을 심판하셨고 심지어 그분을 버리셨다.
3.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기 때문에, 하나님은 우리의 대속자이신 그분을 심판하실 때 경륜적으로 그분을 버리셨다 — 막 15:33-34.
- a. 주 예수님은 신성한 본질이신 낳으시는 영으로 태어나셨고, 이 영은 결코 그분을 본질적으로 떠나지 않으셨다 — 눅 1:35.
 - b. 하나님-사람이신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,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주 예수님의 신성한 존재로서 그분 안에 계셨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우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경륜적으로 그분을 버리셨다 — 마 1:18, 20, 27:46.
 - 1) 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,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과 함께 태어나셨기 때문에, 그분의 신성한 존재의 내재적인 본질로서 성령을 갖고 계셨다.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본질적으로 버리신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— 마 1:18, 20.
 - 2) 그리스도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한 경륜적인 능력으로 그리스도 위에 임하셨던 그 영(마 3:16)께서 그리스도를 떠나셨을 때, 하나님은 경륜적으로 그리스도를 버리셨다.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존재 안에 남아 있었다. 따라서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-사람으로서 죽으셨다 — 요일 1:7.
- E. 인성 안에서 아브라함의 씨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다 — 갈 3:13, 29.
1.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 하반절, 그리고 28장 14절은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므로, 아브라함의 씨가 온 인류에게 큰 복이 될 것임을 말해 주는 예언이다.
 2. 다윗의 씨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에게로,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셨다 — 갈 3:8-12, 16.
 3.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하나님 자신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것이고, 이 씨가 인류가 영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 되시므로써 모든 민족들에게 복이 되실 것이라는 것이었다 — 갈 3:14, 고전 15:45하.

신명기

메시지 8 (계속)

- V. 아브라함의 씨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는데, ‘그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이를 수 있도록, 즉 약속하신 그 영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’ — 갈 3:14.
- A. 아브라함의 복은 땅의 모든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다 — 창 12:3.
- B. 이 약속은 이루어졌고, 이 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민족들에게 이르렀다 — 갈 3:1, 13-14.
- C. 갈라디아서 3장 14절의 문맥은,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위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복이 그 영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— 갈 3:2, 5.
1.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물질적인 방면은 좋은 땅이었으며, 그 땅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— 창 12:7, 13:15, 17:8, 26:3-4, 골 1:12.
 2. 그 영은 복합되신 영이시고, 하나님의 삼일성 안에서 육체 되심, 십자가에 못 박히심, 부활, 승천, 강림의 과정을 통과하신 하나님 자신이다.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— 빌 1:19.
 3.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으로 실재화되셨으므로(고전 15:45, 고후 3:17),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의 복은 좋은 땅이라는 복과 일치한다. 사실상 우리의 체험에서 그리스도의 실재화이신 그 영께서 좋은 땅이다.
 4. 영원토록 우리의 영적인 복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신 그 영을 우리의 유업으로 받는 것일 것이다 — 갈 3:14.
 5.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누릴 것인데, 이분은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완결되신 생명 주시는 영이시다 — 계 22:1, 요 7:37-39.
 6.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믿음을 통해 그 영을 받아들이는 생활이다 — 갈 3:2, 5, 14.